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http://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http://gpnews.org/english)  
일본어판 [gpnews.org/japanese](http://gpnews.org/japanese)  
중국어판 [gpnews.org/chinese](http://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9. 8 ~ 2024. 9. 28 제305호

## 서구 사회의 이주민 청소년 범죄 ‘남의 일 아니다’

최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 이주민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 가운데 10~2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 이들 다음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의 범인이 르완다 출신의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범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가짜뉴스 등으로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다.

스웨덴은 지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범죄 네트워크에 끌려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국가들과 협력, ‘북유럽 허브’를 신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범죄 조직이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주민 거주 지역의 청소년을 모집해 살인을 저지

르는 경우가 증가했다. 스웨덴 말뫼 대학 범죄학 교수 마네 겔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범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 정치인의 부족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2000년대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을 받던 국가였지만, 2014년 1049만 명의 20% 이상이 해외 출생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웨덴 정보 당국은 최근 갱단 범죄의 배후에는 이라크·레바논·이란 등을 본거지로 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도 2023년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인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50만 7584명에 달했

다. 최근 BBC뉴스코리아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둔포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가운데 80%가 이주민 학생이고, 이중 대부분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고려인 3, 4세대이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러시아 출신 김아나(5학년) 양은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애들이랑 러시아 애들이랑 싸움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이주민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자퇴하면서 외톨이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외로운 늑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PNEWS]



백승주 선교사 (P국)

## 20대 후반 7년 차 선교사의 고백, “선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아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26세였다. 그와 함께 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세. 다음 해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파송받아 한국으로 온 사무엘 마펏(마포삼열) 선교사는 도착 당시 26세였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가 27세. 중국 선교의 대부 격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한 것은 21세였다. 선교 역사 가운데 20대 청년 시절 선교사로 헌신해 수많은 영혼을 그리

스도게로 돌아오게 한 쟁쟁한 선교사 반열에 당당하게 낀 한국 청년 선교사가 있다. 28세의 7년 차 선교사로 P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승주 선교사를 지난 7월, 출국을 이틀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8)

## 노아는 120년 동안 대홍수를 경고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이런 초대형 선박은 구경해 본 적조차 없었다. 게다가 이웃들에게 세상을 휩쓸 홍수가 닥친다고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120년 후에 대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노아는 그동안 배 짓는 작업을 계속하며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한편,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대개 수백 세가 되도록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처럼 장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

지 않고 다만 실제 있었던 사실만 기록돼 있다. 당시 사람들의 긴 수명을 고려한다면, 방주를 짓는 데 소요된 120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어 90세 정도면 아주 노인인 여겨졌다.

모든 생물을 방주에 싣는데 7일이 걸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이 종류마다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현재 멸종된 종류의 동물까지 다 싣는다 해도 그 방주의 60% 정도 공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나머지 공간에는 동물들의 먹이를 적재했다. 덩치가 큰 짐승의 경우는 어린 새끼를 싣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공간은 더욱 여

유가 있었을 것이다. 급격히 낮아진 온도로 인해 어떤 짐승은 동면을 하므로 식량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하신 생물들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셨다.

방주에 싣는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드디어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밖에서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노아는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없었다. 반면에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방주의 문이 열리거나 부서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상 문 안쪽에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있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그 하나뿐인 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들이셨고, 거역한 사람들을 문밖에 버려두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120년의 말미를 주셨다.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노아 가족을 비웃고 조롱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

다. 사람들은 때때로 위협만 하고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이렛날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창세기 7:11~12 KSV)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 가나, 에이즈 고아 25만 명...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 가나의 탐비구 학교 헌당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제공: 맹재관 선교사

**뭉게뭉게** 핀 흰 구름 하늘 아래 운동장을 돌며 손뼉을 치고 있는 이들이 즐거워 보인다. 교회에서 시작된 가나 탐비구 학교의 헌당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은 손뼉 치고 찬송하며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배움과 꿈과 희망을 노래했다. 가나는 인구의 62%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정기적으

로 출석하는 사람은 12% 정도다. 또 물신(物神) 숭배와 주술 행위, 명목주의에 치우쳐 있다. 거리에는 고아들이 수만 명에다가 에이즈 고아만 25만 명, 매년 3000명의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간다. 또 아이들은 가족의 죄를 씻기 위해 주술사들에게 종교적 노예로 팔려 가거나 노동 착취와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 아픔이 가득한 이곳 가나! 복

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손뼉 치며 나아오는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종교 노예로,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로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5) [G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우간다 기독교인, 무슬림 전도 이유로 살해당해

우간다 동부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인을 칼로 살해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지난달 23일 전했다. 괴한들은 요와부 세바카키(52)가 제자 훈련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를 공격했다. 세바카키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은콤바는 “오토바이가 우리 뒤에 다가왔고, 세바카키는 ‘광가(긴 소말리아 칼)’로 보이는 물체에 맞고 머리를 베였으며 출혈이 심해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그는 사망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우간다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회개하고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소서.

### 수단, 두 달간 수해로 114명 사망

수단에서 6월 시작된 장마로 인한 수해로 114명이 사망하고 28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개 주에서 2만 7278가구, 11만 27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단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17개월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 4월 15일 본격화된 정부군과 반군(RSF)의 무력 충돌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는 상황이다. 양측의 분쟁으로 수만 명이 숨졌고 집을 떠난 피란민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연재해와 계속되는 내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단을 긍휼히 여겨 주사 영원한 반석되신 주를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속히 내전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 韓 낙태브로커, 온·오프 무법 활동... 낙태죄 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브로커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한 브로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임신 10주 100만원·19주 200만원, 미성년자 상담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재판들이 속속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산부인과는 ‘낙태 영업’을 시작했고, 임신중절약도 활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태죄 입법 공백을 틈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법이 제정되게 하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되게 하소서. [GPNEWS]

## 말레이 기독교인, 10년간 법정 투쟁 끝 신분증의 ‘이슬람’ 표기 삭제



▲ 말레이시아 신분증. 출처: 유튜브 채널 Jabatan Pendaftaran Negara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기독교인이 10년간 법적 투쟁 후 자신의 신분증(MyKad)에서 ‘이슬람’이라는 표기를 제거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코타키나발루 고등법원은 최근 리에노 글란트 올리안트 조지(28. Rieno Glant Oleant George)가 무슬림이 아님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리에노의 성장 배경과 종교적 소속을 중심으로 진행됐

다. 다툼 잘레하 로즈 판딘(Datuk Zaleha Rose Pandin) 판사는 리에노가 이슬람교를 실천한 적이 없으며 개종한 적도 없음을 강조했다. 리에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할머니에 의해 자랐기 때문에, 그의 배경이 2004년 사바 이슬람 종교 위원회(Majlis Ugama Islam Sabah, MUIS) 법령 제2조에 따른 무슬림의 정의와 맞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사바주 이슬람 종교 업무국(JHEAINS)에서 받은 편지를 고려했다. 이 편지에는 리에노가 무슬림 개종자 명단(Sistem Maklumat Muallaf)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슬람 종교 업무국이 사바 지역의 모든 무슬림 개종자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

인은 “자명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잘레하 판사는 2004년 제정된 MUIS 법에 따라 어머니가 재혼을 통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종교적 지위가 공식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리에노의 사례가 고유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됐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콜롬비아, 와유나이키어 완역 성경 배포

콜롬비아 성서공회가 원주민 언어 와유나이키(Wayuunaiki)로 처음 완역된 성경 번역본을 공개하고 원주민들에게 1600권을 무료로 배포했다.

영국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 성경 번역본은 콜롬비아의 두 원주민 집단인 와유(Wayú)족과 나사(Nasa)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9년 콜롬비아 국가통계청(DANE) 데이터에 따르면, 와유족은 콜롬비아 원주민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나사족은 약 12.8%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 성서공회는 “우리는 콜롬비아의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해 그들의 모국어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우리는 와유와 나사 공동체와 함께 와유나이키어와 나사 유웨(Nasa Yuwe)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성경 학자들, 원주민 언어를 잘 아는 번역가들, 언어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경 본래의 의미와 해석이 원주민 언어로 번역될 때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번역은 약 13년에 걸쳐 완성됐으며, 스페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받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감리교 연합을 미국보다 빠르게 일궈낸 한국교회... 1930년대 즐라 페인 선교사 편지에서 밝혀져

100여 년 전 일제의 식민지가 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간호사로 활약하며 복음을 전하던 미국 여성 선교사 즐라 페인(Zola Payne)의 애뜻한 사연을 담은 편지들이 최근 공개됐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원정하 선교사가 최근 일시 귀국해 참가한 한 집회에서 1930년대 조선에서 사역한 페인 선교사의 조카 손녀 샬리 자매를 만나 페인 선교사의 편지들을 받았으며, 당시 시대 상황과 편지 내용이 담고 있는 사연들의 의미와 배경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 발굴된 편지는 페인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지 11년째인 1931년 1월 1일에 그녀의 사촌 '미니 루돌프'에게 보낸 서신으로, 당시 급격한 국내의 정세와 많은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너무 고마워요. 예쁜 손수건들을 정말 감사히 잘 받았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당신께 아무것도 보내드리지 못해 너무 부끄럽네요. 하지만 미니, 여기는 정말 바쁜 한 해였고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준비해야 해요. 이미 만주에서 온 피난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 번 요청받았어요.”

당시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만주 사변이 발발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페인 선교사는 소개하며 선교 공동체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도 굳건히 사역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밀턴 가족의 어린 세 자녀 귀에 문제가 있어요. 작은 메리 헬렌은 유양돌기 수술을, 작은 데이비드와 베이비 루스는 고막을 절개해야 하고, 딜링햄 아가씨는 인플루엔자와 폐렴으로... 연변에서 온 오버만 선교사도 관절염을 앓고 있고 그의 딸 레베카 거디네 자매도 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아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중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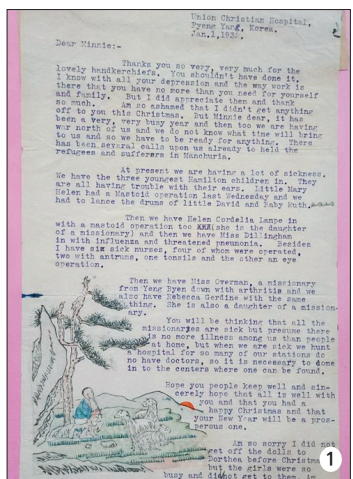
## 한국명 변솔라 선교사, “100만 부의 전도 책자 배포할 조선교회의 단합 놀라워”

1890년생인 페인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의 신분으로 1920년에 조선에 입국해 평양연합 기독교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다 1939년 귀국했으며, 한국에서 변솔라(卞率羅)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정보자료실에서 확인됐다.

그녀는 또 1932년 10월 1일자로 기록된 편지를 통해 평양에서 부흥과 전도가 뜨겁게 일어났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조선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대규모 전도 캠페인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어요. 10월 16일부터 6주 동안 캠페인에 참여하는 2500개 교회는 부흥위원회가 준비한 ‘개인 전도’에 관한 6개의 교훈을 공부하



기 위해 매주 주일 또는 주중 기도를 가질 계획이에요. 11월 27일은 ‘결단의 날’로 모든 기독교인은 최소한 세 명의 비기독교인 친구의 이름을 교회에 제출해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부흥위원회는 성경 언어로 된 소형 책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준비했어요. 각 교회와 선교단체의 자금으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우리 지역의 모든 비기독교 가정에 이 책이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90만 부의 책자가 주문됐고 최소 100만 부가 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동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의 기독교 세력이 이토록 단합해 힘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정된 날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화 전도 책자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원정하 선교사는 페인 선교사가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인쇄 시설이 없던 시절에 100만 권 가까운 책자를 발간하며 보급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이 대목의 글을 읽던 중 영영 울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페인 선교사는 또한 당시 미국의 다양한 교단 파송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인사와 다른 동봉된 것들을 잘 받

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보았습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리고 니콜슨 감독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는 북감리교와 남감리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단에서 파견한 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요. 현재 연합을 위한 위원회들이 한국에서 모여 있습니



1 즐라 페인 선교사가 미국의 사촌 동생에게 보낸 편지 사본. 제공: 원정하 2 페인 선교사의 사진. 출처: 페이스북 계정 HANA - One Free Korea - Sally Jo Messersmith 캡처

다. 미국에서 보내진 두 개의 교단(감리교, 장로교)이 하나되면 좋겠어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은 조선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사역하지만 조선인 대상으로는 하지 않아요. 침례교 등도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요.”

원정하 선교사는 “당시 미국 감리교단은 남북전쟁과 노예제 문제로 북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분열된 상태였다. 따라서 북감리회가 정동교회를, 남감리회가 종교교회를 건립하는 독자 사역을 벌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결국 두 감리교가 하나가 되었고, 뒤늦게 미국에서도 두 감리교가 연합할 수 있었다. 이런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즐라 선교사의 편지는 이 같은 당시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교회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페인 선교사는 이어 선교지에 있으면서 고국의 후원자들이 보낸 선물과 물품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는지 당시 풍경과 사역자들의 근황, 또 1930년대 한국 상황을 소개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요즘 미국 상황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조선)는 항상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경험한 것 중 최고였습니다. 보내주신 상자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기억해 주셨고, 우리

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거지 소년들을 목욕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쌀과 옷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두 명, 한 부부가 티푸스에 걸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 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서울에 많은 새 상점을 지었고, 이제 세 개의 상점(현재

레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앓아온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 병원의 닥터 오(Dr. Oh)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업적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미 당시에 만주 선교를 위해 헌금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헌금 내역과 규모에 대해서도 그녀의 편지는 소개하고 있다.

“지난 주일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정해졌고, 그때 그들은 만주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감사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헌금 55엔과 많은 쌀, 호박 등을 모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제 헌금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한국에서 ‘55엔’의 화폐 가치는 대화형 인공지능(AI)시스템인 챗GPT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당시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10엔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이는 쌀 5~6가마를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었다. 이 헌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달러 정도이며 이는 한화로 75~8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힘껏 헌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인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며, 당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보다 앞서 여성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 서양도 머뭇거리던 여성 사역자 설교,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시행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외국인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여성이 설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서양 교회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한국 감리교회는 5년 전에 그 특권을 여성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동양이 서양 형제들보다 먼저 이 일을 했다는 것에서 기독교가 잘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은 항상 여성을 얕잡아 보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심지어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예배 때, 무어 감독님께서 두 명의 남성, 닥터 베커(Dr. Becker)와 닥터 스토크(Dr. Stokes), 그리고 두 명의 여성 성직자 미스 마커(Miss Marker)와 미스 올리버(Miss Oliver)에게 성찬식 보좌를 요청하셨습니다.”

[GP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리는 백승주 선교사 (P국)

### • 1면에 이어

- 한국 선교사 중 29세 이하 비율이 0.88%라고 해요. 21세에 선교사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인데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15살에 청소년 복음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만났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이야기 형태로 쉽게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데 복음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처음 느꼈어요. 나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선교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미래에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한창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 15세에 복음수련회에서 구원의 기쁨

- 복음을 깨닫고 곧바로 선교사로 헌신한 거군요. 이후에 어떻게 선교사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 부모님도 그 무렵 선교지로 나가게 됐어요. 당연히 저도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헤브론원형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육하는 학교였어요. 그때 부모님이 학교를 다 못마쳤으니 학교를 다 마치고 나가면 어떻게 냐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헤브론으로 불러주셨어요.”

- 선교사로 준비되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막 복음을 만났고,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헤브론에 와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가면서 옛날에 가졌던 습관과 가치관들이 2년 동안 바뀌는 실질적인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면서 나도 나를 알게 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제를 통해서 더 명확히 보게 됐어요.”

- 그런 시간들이 선교지에서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설교자로 서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흘러간다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 사역지인 호

스텔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요.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가 전하시긴 하지만 다른 곳에 계실 때는 함께 선교사로 헌신한 언니와 제가 돌아가면서 전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번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자 호스텔을 맡게 되면서 매일 메시지를 전할 상황이 됐어요. 모든 공동체가 매일 같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아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 분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다음날 전할 메시지를 준비해요.”

- 선교지에는 언제 나가게 되셨나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백승주 선교사

“2017년 2월 말에 헤브론원형학교 졸업 후 2년간의 단기선교 과정인 용감한정예병(이하 용정)을 L국에서 지냈어요. 용정을 마칠 무렵 장기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정은 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정 기간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싸움이라든지,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됐어요. 결국엔 모든 분들이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의 길이 불확실한 미래나 두려움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해서 살 때 스스로 세우는 계획 속에 불안하거나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 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안전하고, 가장 보장된 길이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장기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다보니 저도 만약 선교지로 나가게 된다면 이슬람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부모님이 저에게 정식으로 함께 사역하자고 콜링해주셨어요.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건가?’ 고민됐지만, 주님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기쁨으로 P국에 가게 됐어요.”

###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선교사 헌신

- P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남자 호스텔에 합류했어요. 2년 동안은 마음도 분주하고, 사역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호스텔(Hostel)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집 근처에 학교가 없거나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한 위탁 보호시설이에요. 한 학기 동안 와서 생활하다가 학교가 방학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요. 이전에는 호스텔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맡으면서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호스텔에 오는 아이들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본인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교육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요.”

-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크리스천미들스쿨이라는 현지 기독교 교단의 교구에 소속된 학교예요. 저희가 호스텔을 맡고 나서 2년 뒤에,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선생님들을 한 명씩 내보내던 때였어요. 학교에 우리 호스텔 아이들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구 측에서 우리에게 맡아볼 것을 기도해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라는 말씀을 받으셨어요. 허물어져 있던 것들을 세우시고 원래 이 학교를 세운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이 학교에 기대하시는 그 목적대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맡고 있어요.”

- 학교 이름에 기독교라는 게 확



제공: 백승주 선교사

실히 나타나는데 모두 기독교인들만 오는 건가요?

“학교 이름에 ‘크리스천’이 들어가 기독교라는 걸 알면서도 무슬림, 힌두, 기독교인들이 와요. 선교사는 타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앙 교육을 따로 안 해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별도의 종교 수업은 못하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요. 이것에 다 동의하고 학교에 오는 거죠. 무슬림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보내면서도 기독교 신앙 교육을 어느 정도는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독교 수업은 없어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호스텔 아이들이 무슬림 친구들과 묵상했던 말씀을 나눈다든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 호스텔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처음 오셔서 1년 5개월 정도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는 호스텔에 일부분 동역을 하고 계셨어요. 기간이 다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새로운 거처를 놓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빈 호스텔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교구에 연락해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기 전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받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일 방문할 곳이 남은 평생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다는 마음을 받고 가셨어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줄 알고 갔는데 4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펀드가 점점 끊어지면서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영국 선교사님이 세우셨지만 지금은 철수하시고 현지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무 표정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



▲ 잠자기 전 기도하는 호스텔 아이들. 제공: 백승주 선교사

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받은 말씀을 붙잡고 2016년부터 호스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 영국 선교사들의 사역지 이어받아 호스텔 운영

- 호스텔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나요?

“아이들과 시간표대로 숙제하고 놀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주님과 교제 없이 일반 열심하고 있더군요. 은연중에 ‘이게 하나님 일 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말씀 보는 거 놓쳐도 일을 하면 ‘하나님 일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라는 게 훈장 하나 단 것처럼 나는 다 됐다. 일 열심히 하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가서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됐어요.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 호스텔에 오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내는 지역은 도시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현지인들도 거기 정글인데 어떻게 사냐고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죠. 우리 센터가 있는 곳에는 힌두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도 힌두에 영향을 받아서 힌두 문화를 따라하면서도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죠.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자식도 기독교인이 돼요. 씨족 문화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배척을 받아서, 기독교도 문화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호스텔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면 방학 때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고 예배드린다고 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고백하는데 삶에서 특별한 구별 없이 살아가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기도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려주고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변화돼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들도 영향을 받아요. 집에 가서도 매일 묵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성경을 읽는 것이 숙제예요.”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순례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출애굽기란 이름 그대로 출(出)애굽의 과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변방 지역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는 3개월간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출애굽 여정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을 지내는 동안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히브리 인구 제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에게 노역을 시켰고, 국고성(國庫城)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바로 왕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

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 왕 아멘호텝 2세는 20세 청년이었습니다. 바로가 장자를 잃는 10번째 재앙을 맞게 되자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백성들이 국경 지역 라암셋을 떠나 숙곳, 에담, 바알스본을 거쳐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홍해(紅海)’란 히브리어로는 ‘암순(אֲמוּן)’인데,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바로 왕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욕심에서 홍해 앞에 갇힌 이들을 다시 잡아 오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14절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는 말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

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했을 때 모세는 도리어 “못 한다.”고 거절했습니다(3:11).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못 한다고 거절했습니다(4:10, 13).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는 14장까지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못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다고 거듭거듭 저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는 “완악했다. 완강했다.”(7:13, 22, 8:19, 9:12, 35, 10:20, 27, 11:10, 14:4)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이끌어간 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레토릭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 코시모 로셀리(Cosimo Rosselli)의 'The Crossing of the Red Sea(1481)'. 출처: wikipedia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남모르는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시련이나 고통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에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경을 인도할 때 백 미터 앞에 장애물이 있다, 오백 미터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

해 대신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하시는 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14:14)는 선언입니다. [GPNEWS]

이상규 교수 (전 고신대 교수.현 백석대 석좌교수)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정말 기이한 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이 극도로 가난할 수도 있었고 질병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현재 당신은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병상에 누워 움푹달라하지 못한 채 지낼 수도 있었으며,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되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흥포한 광기(狂氣)의 노예가 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도 있었다. 그럴진대 당신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면제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질병이 당신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말 그대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풍성한 은혜를 과분하게 받았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발뒤꿈치로 하나님을 걷어차는 인간에게 자신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이야말로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닌가? [GPNEWS]

'내 주께 굴복하라' (C.H. 스펔전에서 발췌)



## 독자편지

###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로 사용된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문을 나누고 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주보 옆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나누어 줄 때보다 많은 양이 남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직접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교역자와 각 부서별로 전하고 있다. 가끔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처럼 놓여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주님의 감동으로 신문을 열어볼 때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갖다 놓는다.

복음기도신문을 지속적으로 계속 돌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신문이 왔으니가 습관적으로 돌리고 그저 읽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의 나태함을 보게 된다. 성도들이 신문을 읽고 복음의 기

쁨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기도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 즈음에 꼭 집어서 복음기도신문을 배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달라 하는 연락을 받고 너무 부끄러웠다.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문득 어깨 수술을 했을 때가 생각났다. 병원에 입원해 수술 날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나와 똑같은 증세로 수술한 환자를 보게 됐다. 수술 전에는 아주 강해 보였던 환자가 수술 후 큰 통증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 무렵 나의 맘속에 두려움으로 수술을 포기하곤 생각이 밀려왔다. 망설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이 이 수술의 아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 이참에 예수님의 십자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자.'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평안했다. 하도 신기해서 무통주사 때문인가 생각해 무통주사기를 빼 보았다. 동일한 평안함이다. 아~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셨다.

복음학교를 마치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한 글을 소개한다.

#### 만남

내가 죄의 몸으로 있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자 하시네.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순종한 나를 살리셨네.

이제 생각해 보니 아주 귀한 사랑이여라. 못 다한 기도 있어 기다리시는 예수님만 보게 하시네.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전했고 또 전해질 복음기도신문을 만나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소식!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통로로 복음기도신문이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음기도신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계속 순종하렵니다. [GPNEWS]

정해곤 장로(꿈꾸는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8)

#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3-4)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화합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 이성으로 알아듣기는 어렵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진리에 목마름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심령 안에 갈망, 즉 목마름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게서 나오는 마음은 전부 지저분하고 망할 짓이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그러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

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다. 영이 죽어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려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고 양심을 뒤흔드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복음 앞에 서게 되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는지 알게 된다. 통과해 본 사람은 안다. 자신이 말하던 것과 통과한 것과 무슨 차이가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있는지 실제로 믿음으로 부딪혀본 사람은 안다. 그러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10-11)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 영원불변의 진리를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1.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독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급여: 280만 기준-근무시간따라 조정)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2. 간호조무사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280만)
3. 연수원 관리소장 (경력자 우선 채용, 급여 300만)

**문의**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010-8528-3217  
숙식 · 근무 일 조정 가능합니다 ☎ 010-3705-9188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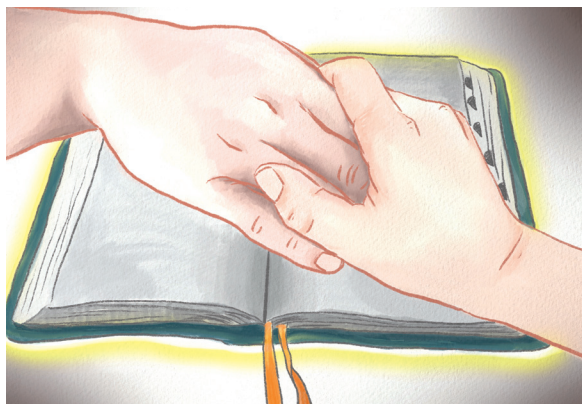


#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공황함이 부어졌다

며칠 있으면 아버지의 2주기 추도일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방광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나 암세포 전이가 빨랐고, 아버지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는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셨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네.”하고 싶었다. 그때는 그것이 쉬워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근원적인 이기심,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입원하실 때마다 왜 매번 내가 보호자로 들어가야 하는지.’라는 마음이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랐지만 아버지의 술 습관으로 그 사랑이 무색해졌다. 이십 대의 어느 날 난,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런 내가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화장실을 청소할 때 오시면 소변을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고, 여러 전통제의 복용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이듬해 1월, 첫 예배 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일러스트=고은선

가 너를 쉬게 하리라’(출 33:14) “진짜 데려가시려고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진짜 시간이 얼마 없었다. 죽음의 과정과 고통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의지할 곳 없이 험한 삶을 사신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공황함이 부어졌다. 섬길 수 없는 나를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하늘 아버지를 주목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시 48:14) 이 말씀을 힘써 믿었다.

구원과 거리가 먼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점점 더 마른 가죽 부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셨지만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계셨다. 당시 아버지는 밤마다 요한복음을 듣고 계셨다.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라고 하시며 아이처럼

웃으셨다. 니고데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응급실에서 이제 이틀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 깊이 찌르는 바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에 시편 23편을 읊조렸다. 그때 아버지가 내 귀에 들려주신 작은 “아멘”은 기적 그 자체였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퇴원한 어느 날, 호스피스병원 의사에게 “의사 양반, 내가 얘기 하나 할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발에 심어 주셨어.”라고 말씀하셨다. 돌아가시기 2주 전, 침대 머리맡에서 자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다. 이미 곡기를 끊으신 지 이십여 일이 지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들려진 복음 앞에서 소리 없는 “아멘”을 외치셨다. 아버지는 출애굽기 33장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덮는 장

면을 특히 좋아하셨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은 여호와와 이름을 우리 앞에 선포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에 주의 손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믿음을 주셨다. 도저히 못 보내드릴 것 같은 내게도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29~30) 말씀 앞에서 ‘이제는 데려가셔도 괜찮다.’는 고백을 드렸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본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주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셨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아버지의 도움이 되셨고, 아버지는 죄 사함과 구원의 절실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드셨다.

임종 당일 새벽,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했다. “아버지, 때가 되어 내게도 이날이 이르면 나는 아버지가 한 것같이 똑같이 할 거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해 줘.” 한때는 큰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큰 기쁨인 아버지를 추모하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GPNEWS]

윤영희

## 데이터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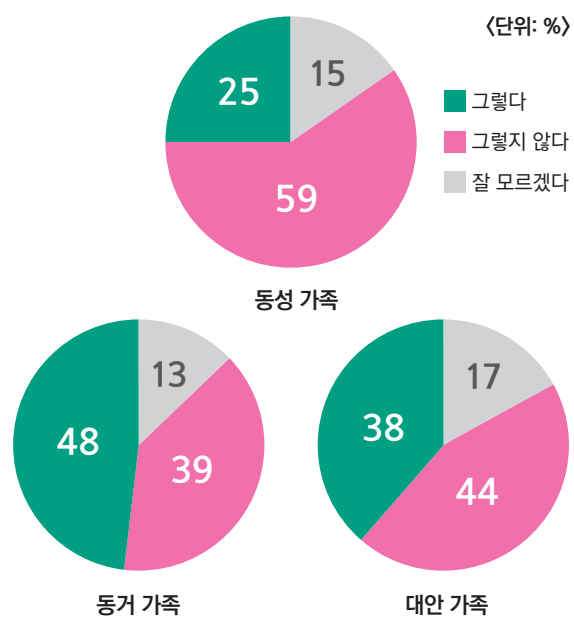


### 국민의 절반 이상, “동성 가족, 정상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동성 간에 이뤄진 동성 가족에 대해 정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신고 없이 가족을 이룬 동성 가족에 대해서는 정상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2024 가족인식조사’에 따르면, 동성 가족에 대해 정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 가족에 대해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8%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하는 형태의 가족인 대안 가족에 대해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 정상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로 나타났다.

####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

정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한국리서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욕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모든 사람이 남녀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행실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GPNEWS]



## 북한 부흥을 위하여

### 北 주민들, 수해 때 초상화보다 발전기 챙겨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지난달 말 발생한 수해 당시 긴급 대피한 주민들 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보다 텔레비전, 태양광 발전기 등을 먼저 챙긴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이는 과거 인물인 김 부자의 초상화보다 현실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 사이에 퍼져있는 것으로 매체는 분석했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소식통은 함경북도 양강도와 자강도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까지만 해도 집에 불이 나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

상화를 들고나왔는데, 이번에는 텔레비전, 태양광 발전기 또는 변압기 등 중요한 것들을 챙긴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일부 공공장소나 기관에서는 김정은 초상화도 있지만, 현재 북한 주민 집에 걸린 초상화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라며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김일성, 김정일은 과거 사람이어서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지고, 김정은 정권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떠나 ‘이제는 김정은 시대’라는 선전도 하고, 과거의 통치 구조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들이 작용하면서 초상화를 무엇보다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사람들의 의식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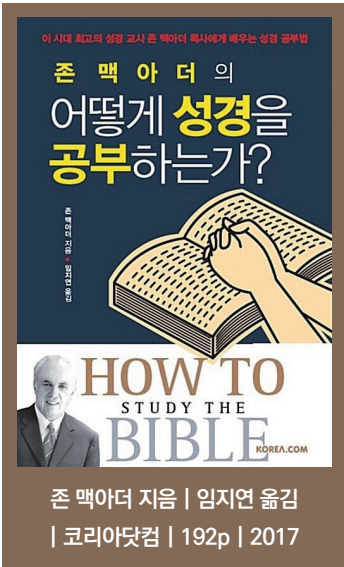
▲ 북한의 방 안에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출처: unsplash의 thomas evans

기도 | 북한 당국이 아무리 김 부자를 신격화 해도 결국 이들이 신이 아니며, 공산주의가 말하는 부의 공평한 분배도 결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인질 삼아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한 정권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

러났다.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정권의 거짓된 속임에서 구원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참된 생명을 얻어 진정한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기도하자. [GPNEWS]



#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매일 9살, 8살, 5살 된 세 아이에게 성경 목상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함께하고 있다. 점점 더 디지털 미디어의 영역이 고도화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를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

아이들은 글자를 깨치고 읽게 되는 과정,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한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과정, 뜻을 이해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말로 표현한 것을 글로 적는 모든 과정을 성경 목상을 통해 배워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목상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많은 고민이 생겼고, 무엇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매일의 목상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나던 중 한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 가벼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먼저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선포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을 저자는 제시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교훈을 따르기보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게 하기 때문이다.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하여 나눴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와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명백한 길을 제시해 주신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게 하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성경을 믿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이다. 성경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귀히 여겨야만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또한 거룩함으로, 영을 따라 행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인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결론을 짓는다. ‘성경을 읽으

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가르치라.’라는 4가지의 방법을 통해 성경의 진리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것을 독려한다.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진리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나누며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영의 일을 깨닫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우리 다음세대가 거듭난 자만이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진실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길로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 [GPNEWS]

박혜인 선교사



##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B 지역에서 개최된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G 지역으로 돌아가야 할 날짜가 좀 남아서 지훈 형제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컨퍼런스 후에 이곳에 며칠간 머무시는 선교사님들께 많은 섬김을 받았고,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며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섬으로 들어가서 지낼 때는 오토바이 렌탈비가 교통비보다 더 싸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B 지역으로 돌아와서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부모님께 많이 들었고 지훈 형제도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살살 운전했습니다.

I국 사람들의 오토바이 운전 스타일은 오토바이가 들어갈 틈이라도 있다면 차선과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운전

하는데 차가 너무 막히길래 저도 현지인 식으로 막힌 도로 사이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앞에서 차가 막히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고, 한 분이 누워서 꼼짝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이 차로를 정리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이 정리되어 가기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후에, 지훈 형제가 아까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내려서 심폐소생술(CPR)을 해줬어야 했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위험할 텐데...”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쳤고, 그분에게 가서 CPR을 해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훈 형제의 말을 듣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여러 번 배웠던 것이 생각났고, 배울 때 선생님께서 선교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울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



출처: Unsplash의 Fikri Rasyid

이 생각났습니다. 다 알고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배웠던 것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찌면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놓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정말 많고 어머마한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I국에서 지난 5개월 동안 그 진리를 실제로 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무슬림 국가니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고 보안상 위험하니까...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은 조심해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깨어있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G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맺고,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역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잡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저를 계속 주님께 드릴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이번 달도 저의 삶에서 신실하고 멋있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GPNEWS]

신빌립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4. 8. 7 ~ 8. 27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광만석 권영기 김선례 김선정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박성규 박중서 신혜경 안석문 양혜원 이은주 이종훈 이항은 장근혜 장옥희 전찬휘 정금자 정옥영 정요한 정호진 조복형 최근희 최은숙 홍고집 무명

### 교회 및 단체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목사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서현교회 웹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구루터교회 열매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햄시바교회

###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